

조선 후기 호남의 불교한시 연구*

- 梵海 覺岸의 시를 중심으로 -

조태성**

〈차례〉

- I. 들어가며
- II. 범해의 저술 활동과 그 특징
- III. 『原集』의 시와 禪의 표현
- IV. 『補遺』편의 시와 자연에 대한 영탄
- V. 나오며

I. 들어가며

‘선시’의 전성기라고 일러도 좋을 고려시대에는 승려들의 적극적인 作詩 활동뿐만 아니라 당대의 유명 학자들까지 불교문화의 영역에 뛰어들어 주옥과 같은 작품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문화·정책적 배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간의 작시 풍토는 급격히 쇠퇴하게 되며, 이러한 기운은 선시의 주체였다고 할 수 있는 승려들에게서도 예외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특히 전기는 ‘불교한시(내지 선시)의 암흑기’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 이 논문은 2004년 전남대학교 Post-Doc.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하지만 임·병 양란을 겪은 후 북학과 문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이 펼쳐지고, 더불어 서민 의식이 대두하게 되면서 생겨난 사회·문화적 변화는 산중에까지 그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다. 이 시기에 불교계는 불법의 포교를 위한 불교가사 작품들을 제작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그때까지 산중에서만 지어지던 당대 선사들의 한시 작품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서산대사의 문하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18세기 중엽부터는 고려시대 못지않은 ‘禪詩風’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 선시풍의 주역은 바로 해남 대홍사의 초의선사로, 당대 학계를 주도하던 자하 신위, 완당 김정희, 해거도위 홍현주 등과 교유를 맺으며 佛家文學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초의선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세계에서 ‘禪的 思惟’를 성찰하게 되고, 이로부터 조선 후기 문인들의 작품에서 ‘선적 취향’이 유행처럼 퍼지게 된 것이다. 바로 이 무렵, 초의선사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불법을 전수 받았던 梵海 覺岸禪師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범해선사가 살다 간 19세기는 사회적·문화적·사상적으로 혼돈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주자학의 고질적인 병폐가 만연되어 가는 가운데 실학이 융성하게 되었으며, 민중들 사이에는 천주교가 급속히 전파되어 가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혼돈의 양상을 보이던 당시의 시대적·문화적 상황에서, 범해선사가 충실한 수행승이면서도 불조의 연원을 찾는 일에 전념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의문의 해결은 당대 불교문화사를 재구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범해선사가 불조의 연원을 찾는 일에 전념하던 그의 삶이 시문학에는 어떻게 투영이 되어 있는 지, 그리하여 그의 시가 갖는 특질은 무엇인지 밝혀 당대에 그가 차지했던 문학적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범해선사가 남긴 『梵海禪師遺稿』와 『東師列傳』, 『梵海詩稿』, 『警訓記』, 『東詩選』, 『遺教經記』, 『眞寶記』, 『史略記』 등의 저술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梵海禪師遺稿』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기타의 문집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II. 범해의 저술활동과 그 특징

범해선사의 자는 幻如, 법명은 覺岸이며 梵海는 그의 법호이다. 1820년(순조 20) 전남 완도에서 출생하여 1833년 두륜산 대둔사로 가서 출가하였고, 1835년 縞衣를 은사로 삼아, 荷衣에게서 사미계를 받았으며, 草衣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1846년에 호의의 법통을 이어 진불암에서 개당하여 『화엄경』과 『범망경』을 강설하고 禪理를 가르쳤다. 22년 동안을 강당에서 학인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조계산·지리산·가야산·영축산 등지에 있는 사찰을 순방하였고, 1873년에는 제주도를, 1875년에는 한양과 송악을 거쳐 묘향산과 금강산을 순례하였다. 그 뒤 다시 대둔사로 돌아와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1896년(건양 1) 법랍 64세로 입적하였다.

범해선사의 시문집인 『梵海禪師遺稿』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보인다. 우선 이 책은 문집 2권, 시집 2권, 보유 1권이 전하고 있으며, 新鉛活字本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梵海遺集補遺』라 하여 본집 보완의 의미인 보유편이 한 권의 분량도 더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본집의 권 1에는 102편의 시가 수록되었고, 권 2에 68편이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보유』 편에 114편의 시가 더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권1』에는 <雌雄鐘記>를 비롯하여 記·跋·說·辨·論·銘·贊·祝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이 31편이나 수록되어 있고, 『권2』에는 <聞香閣上樑文>을 비롯하여 <禪門謾語>의 서문, <大菴寺無量會募緣疏>, <寄一虛居士書> 등의 상량문과 서문·모연소·書·祭文을 비롯하여 범해선사의 행장 등 42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의 <자옹종기>는 化主하는 승려가 시주를 받아 큰 종을 만들었으나 종소리가 맑지 않아 罪報를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조선 후기 불교사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게 한다. <逐蜩時說> 및 <順天朱黔突大同色說>에도 神力으로 惠哲國師가 모기떼를 쫓아버린 이야기,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난 일 등이 있어 범해선사의 불교관을 더불어 살필 수 있다.

『권2』의 <受菩薩戒契案序>에는 석가로부터 보리달마까지 28世, 달마로부터 혜능까지 중국의 6世, 혜능으로부터 석옥까지가 중국의 방계로서 23

世, 석옥에서 범해까지 한국의 16세를 모두 합해 73세라는 선종의 정통 계보를 밝히면서 범해 자신을 선사의 계보에 올리고 있다. 또 <대둔사무량회모연소> 및 <無量會重修募緣疏> 등에 서방왕생을 서원하고 있고, 염불과 참선을 돌이 아니라고 보고 관음을 참선에 대응시키는 점은 범해의 불교사상이 천태사상 계통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시집 『권 1』에 <次石屋和尚山居詩> 12수 외에 승려와 신도들에게 보낸 시가 49가 수록되어 있고, 『권2』에는 <木槵子千念佛> 등 시 35수와, <人物歌>, <山水歌>, <茶歌> 등의 長時歌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부록인 『補遺』 편에도 시 114수가 실려 있는데, 오언절구로서 <立琬虎祖師碑>, <閔仙巖寺大覺國師集> 등의 작품과 <草衣茶>를 비롯한 19수의 오언율시, <過首露王陵>을 비롯한 58수의 칠언절구 작품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저술활동에 대해 범해는 『東師列傳』의 <자서전>에서 스스로 아래와 같이 평한 바가 있다.

성격이 본디 유화적이고 행동이 태평하여 위급한 유사시에 하나도 불만한 점이 없다. 그러나 마음은 하늘을 거스르지 않아 고개를 들어 남에게 부끄러운 점이 없다. 부지런히 배우고 널리 물어 지식은 넓고 문장은 쉽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들어 알고 벗은 기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온다.

사람들은 문답을 주고받으면 반드시 입속으로 흥분 것이고 사람들과 시를 창화하면 응당 대부분 마음속으로 못마땅해 할 것이다. 옛 사람이 시는 정의 꽃이고 글씨는 마음의 마디라고 하였다. 정이 안에서 움직였는데 손뻑치고 발을 구르는 것은 바깥에 꽃핀 것이니, 이는 이백과 두보의 문장인 것이다. 마음이 속에서 피어나 가로로 세로로 쓰여 진 것은 겉에 마디진 것이니, 이는 왕희지와 조맹부의 글씨인 것이다. 어찌 감히 선현에 비길 수 있겠는가. 때때로 읊은 것은 속태가 과다하고 기록한 것은 속어가 난잡하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은 또한 남들이 허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다!¹⁾

1) 性本柔和 行履安詳 緩急有事 一無可觀 然心不逆天 仰不愧人 勤學博訪 知廣文易 人不見而聞知 朋不期而自至 所與人問答者 必有口呬 所有人唱和者 應多心非 古人曰 詩者情華 筆者心節 情動於內 而杼之蹈之 華於外也 此李杜之文章也 心發於衷 而縱者橫者 節於表也 王趙之筆法也 何敢擬於先賢也 有時所吟者 俗態夥多 所記者 俚語雜遷 知而不改者 亦含於不畏人之效尤也。(梵海, 『東師列傳』, 『韓國佛教全書』 제10권, 1049쪽.)

라고 하였다. 이 글은 입적하기 2년에 쓴 글로서, 이로 보아 2권으로 된 『원집』은 범해 자신이 직접 편집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유』편은 자신이 필사했던 것을 제자들이 시집과 함께 새롭게 엮은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Ⅲ. 『原集』의 시와 禪의 표현

『원집』에 실린 시들의 특징은 宋泰會의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뒷날 이 글을 읽는 이가 선을 찾고 계율을 지키는 마음 법을 상고하지 않고, 다만 구름 안개 달 꽃이나 읊는 말기만 살핀다면 이 어찌 범해선사가 문도들에게 바란 것이겠는가.²⁾

범해의 시를 살피기에 우선 그 표면에 보이는 시구에 얽매인다면 응당 본연의 뜻을 알지 못하리라는 설명이다. 그러하기에 비록 『원집』에 실린 시가 일면 자연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분명 감추어진 禪의 宗指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면밀히 음미한 다음에야 비로소 범해의 시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선의 종지가 잘 나타난 <一爐香室>이라는 작품이다. ‘일로향실’은 초의선사가 거쳐하며 수행하던 일지암의 茶室 이름인데, 추사가 그 현판의 글씨를 써 준 곳이다.

由來看字坐床頭	침상 끝에 앉아 글자 참선 하는 중에
忘却窓前歲月流	창밖의 세월 흐르는 것도 잊는구나
衣食清閑人事懶	먹고 입는 것은 청한해도 인사는 게을러
貧嗔淨盡自居幽	가난해져도 깨끗해서 스스로 그윽히 머무네
齋罷樓中同客飯	재에 쉬며 누 가운데 손과 함께 식사하니

2) 然後之讀此者 若不攷其求禪持戒之心法 只觀其諷詠於烟雲花月之末而已 則此豈梵師之所望於其門徒也哉(<梵海詩稿叙>, 『梵海禪師詩集』, 『韓國佛教全書』 제10권, 1099쪽.)

風輕樹下與禽休 나무 아래 바람은 살랑 짐승도 쉬고 있네
 重來香室思量見 향실로 돌아와 깊이 생각하여 보니
 雲出無心任去留 떠다니는 구름에 무심함만 실어 나르네
 <一爐香室>³⁾

그저 고요함, 그리고 무심함만이 흐르는 작품이다. 선사의 평소 생활이
 며 그 자체가 곧 선의 경지인 것이다. 스스로 게으르다고 표현한 것은 생
 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선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범해의 생각이다. 부산하
 게 이리 저리 다녀보고, 이것저것 둘러보아도 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쉽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며, 만물이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운명대로,
 그저 삶이 흘러가는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곧 선
 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범해는 이야기한다. 선의 수행에는 일체의 도구가
 필요 없다. 결국 그저 무심히 마음가는대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生涯清閒 평생 생활이 맑고 한가하니
 數斗茶芽 두서너 말의 차 싹을 되어
 設苦竈爐 거칠고 일그러진 화로를 설치하고
 載文武火 약한 불과 세찬 불을 베풀었네
 瓦罐列右 질항아리는 오른쪽에 벌리고
 瓷盥在左 사기주발은 왼쪽에 두었네
 惟茶是務 오직 차에 힘쓰는 것을 즐기니
 何物誘我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 있으랴
 <茶具銘>⁴⁾

이 시는 범해의 평상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범해
 는 그 행장에서도 드러나듯이 한 평생을 담박하고 소박하게 보냈다. 그런
 생활을 한 잔의 차를 끓이고 즐기는 것으로 비유하여 나타낸 작품이 바로

3) <一爐香室>, 『梵海禪師詩集』 권1, 『韓國佛教全書』 제10책, 1106쪽.
 4) <茶具銘>, 『梵海禪師文集』 권1, 위의 책, 1083쪽.

이 작품이다. <茶具銘>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내용 중에 나타나는 ‘약한 불과 세찬 불을 스스로 베푸는’ 모습은 바로 선 수행에 다름 아니다. 차를 끓이는 마음처럼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자신을 다그치는 모습을 비유한 작품이기도 하다.

범해에게 있어 ‘禪은 곧 ‘茶’였을까? 이 작품 외에도 범해가 차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다. 범해가 지은 ‘古風長篇’ 형식의 시 중에 <茶歌>라는 작품이 보이며, 초의가 차를 달이는 모습을 보며 지은 <草衣茶>라는 작품도 있다. 또한 ‘한 잔을 마시면 뱃속이 편안해지고, 두 잔을 마시면 정신이 상쾌해지며, 서너 잔을 마시면 온 몸에 땀이 흘러 청풍이 뱃속까지 스며드는 것’이 차의 약효라는 등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茶藥說>이라는 작품도 있다.

이밖에도 범해는 자신의 주변에 흔히 두는 물건에 수행의 마음을 실은 시가 적지 않다. 계속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살펴보자.

藏則方丈	숨기는 것은 곧 방장이요
行乃樹下	행하는 것은 나무 아래이다
柱杖一條	주장은 한 가지요
鉢盂四顆	발우는 사과라
靑州布衫	청주의 베적삼과
江東米價	강동의 미가
髮已種種	머리털은 이미 짧아져버렸으나
高心大坐	높은 마음이 크게 자리 하네
	<行藏銘> ⁵⁾

行藏은 도를 행하는 일과 숨기는 일을 말한다. 이 시는 절에서 스님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과 그 숨은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넘쳐도 수행에는 방해요, 모자라도 방해가 되니 그 옛날 조사들께서 해 오신 그대로 소박하게 사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의미가 숨어있

5) <行藏銘>, 『梵海禪師文集』 권1, 앞의 책, 1083쪽.

음을 알 수 있다.

進止嚴整	나아가고 멈춤은 엄하고 정돈되게 해야 하고
償罰分明	벌은 내림에도 분명함이 있어야 하네
獅子作吼	사자는 크게 울음을 지어도
衆獸歛聲	못 짐승들은 소리를 바라네
動乃守默	움직여 침묵을 지키게 하고
靜必含情	고요하면 필히 뜻을 머금게 되네
古人談柄	옛사람은 자루에 이야기를 담았으나
今我口銘	지금 나는 입에다 새기네

<竹篋銘>⁶⁾

참선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준비에 대해 느낀 바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고요한 가운데 나아가고 멈추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사자후와 같은 소리로 꾸짖어 다시 있던 자리로 오게 하는 준비와 그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스스로를 다그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手中百八	손에는 백 팔 개
堂內一千	당내에는 일 천 개
高聲念數	높은 소리는 수 없는 염원
默坐禪詮	묵묵히 앉아서 선을 설명하네
證席呱呱	증거하는 자리에선 지독히 울어대고
講筵綿綿	강연하는 자리에선 면면히 이어지네
長掛身上	몸 위에 길게 걸고
要防邪牽	사악함으로 이끄는 것을 막는데 필요하다네

<念珠銘>⁷⁾

6) <竹篋銘>, 『梵海禪師文集』 권1, 위의 책, 1083쪽.

7) <念珠銘>, 『梵海禪師文集』 권1, 위의 책, 1083쪽.

굳이 스님들이 아니라도 불가와 인연을 둔 사람이라면 한 개 씩은 가지고 있는 염주에 대해 노래한 작품이다. 그 염주가 수행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 또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는 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범해는 이렇게 수행에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 하나씩 노래함으로써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애써 말하는 수고를 덜었다고 할 수 있다. 그저 수행자들의 주위에서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 담담히 설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선에 대해 알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똑같은 형식으로 제작된 <木鐸銘>, <柱杖銘> 등의 작품들이 더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IV. 『補遺』편의 시와 자연에 대한 영탄

『보유』편에 실린 작품들은 모두 114편이다. 비록 제자들에게 의한 특별한 편집 의도라고 추측되기는 하지만, 범해가 남긴 시문 중에서 특히 자연에 대한 영탄을 노래한 시들만을 간추려 모은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집이다.

다음은 枕溪樓에 올라 지은 작품이다.

壓鎮大雄殿	깃누르는 대웅전
光華不古時	빛은 고와 예스럽지 않구나
塔高烟翠壁	탑은 아지랑이 파란 벽으로 높고
樓泛月明池	누대는 달 밝은 못에 떠 있네
山色雲收顯	산빛은 구름 걷혀 드러나고
溪聲雨霽隨	시냇소리는 비 개이자 뒤따르니
諸天長奏樂	모든 하늘에서 길이 알리는 음악
百鳥舞高枝	온갖 새 높은 가지에서 춤을 추네
	<枕溪樓> ⁸⁾

8) <枕溪樓>, 『梵海禪師詩集』補遺, 앞의 책, 1120쪽.

침계루는 대흥사의 중심을 가로질러 남원과 북원을 구분 짓는 계류인 금당천에 면하여 우뚝 선 2층 누각이다. 북원 일곽의 정문과 같은 기능을 하며 심진교를 건너 누하의 통로를 통해 내정에 들어서게 된다. 보통 주불전 앞 누각이 지면에서 반층 정도 높은 누마루인 데 비해 침계루는 완전한 중층 누각이 중층 주각으로 하층은 돌담과 판벽으로 막은 광이고 상층 전체가 하나의 홀로 이루어진 강당류의 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30평 규모로, 누다락 위엔 큰 북과 종, 목어가 걸려있고 양측 벽에 사천왕 탕화가 걸려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침계루의 누대를 중심으로 한 대둔사의 자연 경관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어느 구절에도 불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저 평범한 시인묵객의 눈에 비친 서경 그 자체이다. 못 위에 서 있는 누대에서 바라보는 맑은 달, 구름 견혀 더욱 짙은 산빛, 그리고 정적을 깨는 맑은 시냇물 소리는 그곳이 절집이 아니라도 가능한 서경이며, 그렇기에 더욱 자연을 닮은 작품이 되는 것이다.

다음 작품을 보자.

特有海南萬仞山	일만 길 높은 산 해남 땅에 솟아 있고
星羅遠岳爭來環	별처럼 벌린 듯 먼 산 다투어 에워싸네
孤高道透靑空立	높푸른 허공에 수직으로 뚫은 도는
方丈蓬萊伯仲間	방장산 봉래산과 백중 사이네
<頭輪峯> ⁹⁾	

대둔사가 자리한 頭輪峯을 읊은 시다. 해남 땅에 우뚝 솟은 두륜봉을 방장산, 봉래산과 더불어 같은 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변의 그렇고 그런 산들 사이로 우뚝 솟은 두륜봉과 그 산을 닮은 지은이의 기상이 눈에 보이는 듯한 느낌이다. 시에서 특별히 사용된 기교나 수식어구 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너무 담백한 묘사로 자연에 대한 시적 감흥이 더욱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다. 이 작품이 두륜봉을 대상으로 白湖 林梯

9) <頭輪峯>, 『梵海禪師詩集』補遺, 위의 책, 1121쪽.

(1549~1587)가 지은 시와 비교해도 그 시적 묘사와 감흥에 있어 전혀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은 백호 임제의 작품이다.

長春洞裏古仙府	장춘동의 옛 선부는
十二瓊樓人到稀	열 두 경루나 찾는 이 드물고
溪流清淺白石出	야트막한 계곡물에 백석이 드러나고
竹路高低紅葉飛	고개 숙인 대숲에 홍엽이 나른다
山風淒冷落桂子	산바람은 낙계자를 싸늘케 하고
海雨飄蕭露草衣	해우는 나부껴 초의를 적신다
頭輪峰頂八千嶙	팔천 길 두륜봉 꼭대기에 올라
待得麻姑笙鶴歸	마고와 학을 타고 피리 불 날을 기다린다 ¹⁰⁾

이 시는 대둔사에 들렀던 백호 임제가 두륜봉에 올라 지은 작품이다. 長春은 두륜산의 동쪽에 있는 곳으로, 잣나무와 풀이 무성한 가운데 동백나무가 그늘을 이루어 온통 푸르른 산빛 속에서도 붉은 꽃망울이 피어나 낙엽 지는 가을이 없고 사시사철이 항상 봄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다.

이 작품 역시 유·불가의 차이를 떠나 지은이의 기상을 엿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품에 담은 사나이로서의 기상과 호방함은 아무 곳에서나 드러나는 것이 아닌 듯, 두륜봉 꼭대기에 올라서야 비로소 ‘학을 타고 피리 불 날을 기다려보겠다’는 백호의 마음이 엿보인다. 이 두 작품 사이에서는 그 어떤 특이한 입장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두륜봉이라는 자연물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흥취를 담고 있을 뿐이다.

成道庵開大嶺頭	큰 고갯마루에 열려 있는 성도암
巖扉時勝穴泉流	바위 병풍은 굴 뚫어 흐르는 물보다 낫다
瀛洲萬里呈靑勢	제주도는 만 리 밖에서 푸른 기세 드러내고
淸海一江泛白舟	완도의 한 줄기는 흰 배처럼 떠 있다

10) 이 작품은 『大菴寺志』(대둔사지 간행위원회, 강진문헌연구회, 1997)에 제목이 없이 소개되어 있다.

古木凌空雲掛佛	하늘 뚫은 고목은 구름에 걸려 나부끼고
新鉤懸壁客登由	암벽에 걸린 새 갈구리는 나그네의 등반 길
久居不見人間事	오래 사노라 세상사 볼 수 없지만
花發知春落葉秋	피는 꽃에 봄, 지는 잎에 가을임은 알겠구나

<成道庵>¹¹⁾

위는 成道庵¹²⁾에 있으면서 지은 작품이다. 성도암이라는 암자의 이름에 걸맞게 범해는 이미 선의 경지를 이루었음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 꽃이 피면 봄이요, 잎이 지면 가을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생각한 범해였다.

그러나 범해는 그런 선의 모습을 전혀 내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이 머무는 성도암 주변에 위치한 자연 경관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넘실거리는 바다, 그 가운데 서 있는 고목들, 세월이 지나도 전혀 무심한 존재들이며,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다음은 눈 오는 날 길을 나서면서 지은 작품이다.

天雨白花頭上積	하늘에서 흰 꽃 내려 머리 위에 쌓이니
非時蝴蝶欲採香	때 아닌 나비가 향기를 탐하러 하네
衣裳變作銀金甲	의상은 금은 갑옷으로 변하여지고
不對軍兵股戰行	전쟁 길 다투는 군사들도 대적을 못하네

<雪中行>¹³⁾

하얀 눈이 내려 허벅지까지 쌓인 어느 날 길을 나서 지은 작품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을 흰 꽃이라 표현하고, 꽃에 어울리는 나비를 등장시키는 묘사는 일면 상투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해는 가장 상투적인 표현을 가장 적시에 그리고 적소에 사용함으로 오히

11) <成道庵>, 『梵海禪師詩集』補遺, 『韓國佛教全書』 제10책, 1125쪽.
 12) 臨海嶺 바깥 3리 쯤에 있으며 石壁이 斗絶하여 巖窟로 사다리를 놓았다. 恒상 선객 5, 6인이 살았으며 소나무 잎을 먹고 지냈다. 『大菴寺志』(대둔사지간행위원회/강진문헌연구회, 1997), 227쪽.
 13) <雪中行>, 『梵海禪師詩集』補遺, 『韓國佛教全書』 제10책, 1121쪽.

려 신선함을 배가시키는 능력을 보여준다. 불가의 몸을 담은 선사의 시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다음 시는 꽃에 대해 노래한 작품이다.

牧丹三四本	목단 꽃 서너 뿌리
小滿共爭開	작지만 가득하게 다투어 피어있네
白日向陽燄	낮에는 양지에서 꽃 거울 이루고
清宵承露杯	맑은 밤에는 이슬 잔에 오르네
香風來觸鼻	향기로운 바람은 콧내음을 자극하고
嫩態照紅腮	어린 자태는 빨간 볼에 비춘다
富貴當如此	부귀가 마땅히 이와 같으니
稱王豈不巍	왕이라 칭하여 어찌 높다 아니하리

<牧丹花>¹⁴⁾

당 앞 조그마한 마당 한 쪽에 무리지어 가득히 피어있는 목단꽃을 보고 느낀 감회를 적은 작품이다. 눈에 보이는 꽃의 형상을 단조로운 정도로 담박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마지막 구인 ‘富貴當如此 / 稱王豈不巍’은 宋代 학자인 周敦頤의 <愛蓮說> 중 ‘牧丹 花之富貴者也’라는 구절에서 빌려왔다. 이 작품과 함께 ‘牧丹’을 소재로 하여 지은 <秋牧丹>, 일명 ‘唐菊花’라는 작품이 또 있으며, 기타 꽃에 대해 읊은 시로 <映山紅>, <玉梅花> 등의 작품이 더 있다. 다음은 <秋牧丹>이라는 작품이다.

開花紅紫白	다홍 자주 하얀 색 꽃은 피어서
洩露向陽團	이슬을 머금고 무리지어 별을 향하네
能耐風霜苦	풍상의 고통을 능히 견뎌 내었으니
名稱秋牧丹	이를 일러 가을의 목단이라 하시고

<秋牧丹-一名唐菊花>¹⁵⁾

14) <牧丹花>, 『梵海禪師詩集』補遺, 앞의 책, 1121쪽.
 15) <秋牧丹-一名唐菊花>, 『梵海禪師詩集』補遺, 위의 책, 1119쪽.

범해의 자연시는 이처럼 시어의 구사에서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난다. 어느 자연시들과는 달리 일부러 꾸미는 듯한 수식어구의 사용을 절제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절제는 범해의 평소 생활의 방식과 다름이 없다. 범해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평범한 것이 선이었던 것처럼,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로 가장 쉽게 노래하는 범해의 자연시아말로 자연 그 자체와 가장 닮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 절에서茶具와 관련한 범해의 시를 간략히 살피면서 그것이 선에 이르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는 ‘茶’ 그 자체를 즐기면서, 또한 은사인 초의선사를 흠모하는 마음까지 담은 작품을 한 수 살펴본다.

穀雨初晴日	곡우 전후 맑은 날
黃芽葉未開	노란 싹 아직 피지 않았을 때
空鑪精妙世	빈 솥에 쓸어 넣고 볶아서
密室好乾來	밀실에 건조하게 놓아 둔다
栢斗方圓印	잣나무 되로 둥글게 담아 봉인하고
竹皮苞裏裁	대나무 껍질로 겉을 싸서 마름질하고
嚴藏防外氣	외기를 막도록 엄중히 저장하면
一椀滿香回	한 잔의 차에는 향기가 가득 돌아오네

<草衣茶>¹⁶⁾

초의에게 선 수행을 지도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초의가 차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초의가 차를 만드는 법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곡우를 전후하여 항상 좋은 찻잎만 골라내어 볶고, 담아서 건조하게 만들어 보관하는 그 모습, 그리고 홀로 앉아 차를 음미하는 그 모습이 범해에게는 선의 경지에 이른 바로 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범해는 선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바라보며 느낀 바를 서술하였을 뿐이다.

16) <草衣茶>, 『梵海禪師詩集』補遺, 앞의 책, 1120쪽.

V. 나오며

범해선사는 당대에 이미 불조의 유업을 세운 佛史家로서 그 명성을 떨쳤을 만큼 불교사에 정통한 선사였다. 이러한 범해선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앞서 말했다시피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도 하다. 우선 그의 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들과 나란히 그의 불교문화적 업적까지도 동일하게 연구되어야 만이 비로소 범해선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살핀 바대로 범해선사는 현재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겼던 禪詩人으로서보다는 『동사열전』이라는 저술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불조의 유업을 집대성하고 다시 일으킨 佛史家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듯 잘 알려진 그의 저술 행적과는 달리 범해선사가 저술 이전에 느끼고 정서적으로 어루만졌을 정신문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이러한 면모를 그가 남긴 자연사에서 찾고자 하였다. 범해선사의 시 가운데 자연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보유한 한 권 분량의 자연시는 도저히 그가 선사의 신분에서 詩作을 하였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정도였던 것이다.

또한 범해선사는 때로 차와 함께 하며 선의 경지에 드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의 시에 화운하거나 화답하는 승속들과 차를 함께 하며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불교 법리의 체현에 힘쓰고자 했던 자신의 생활을 시로써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범해선사는 자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불도의 경지를 바로 이러한 차에 대한 사랑과 시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시적 특성은 당대의 문학사적인 특질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문화사적인 의의까지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梵海 『東師列傳』
——, 『梵海遺集』
——, 『梵海遺集補遺』
法興 위음, 『禪의 세계』, 도서출판 호영, 1992.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보림각, 1973.
李鍾燦, 『韓國佛家詩文學史論』, 불광출판부, 1993.
——, 『朝鮮高僧漢詩選』, 동국대학교 불교간행위원회, 1978.
李晉吾, 『韓國佛教文學의 研究』, 민족사, 1997.
印權煥, 『高麗時代 佛教詩의 研究』,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3.
千柄植, 『韓國茶詩作家論』, 國學資料院, 1996.
洪起三, 『佛教文學이란 무엇인가』, 동화출판공사, 1991.
東國大學校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會編, 『韓國佛教全書』 第10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투고일 : 2005.6.27 심사일 : 2005.7.1 심사완료일 : 2005.7.19>

K C I

Abstract

**A Study on Honam Zen Poetry
in the Later Chosun Dynasty**

- Concentrate on Zen priest Beomhae's Poetry -

Jo, Tae-seong

This paper is a study on Zen Priest Beom-Hae's poetry. Zen priest Beomhae was good at the poem and was a Buddhist historian.

In chapter II, I considered a feature of his writing. And I examined together with primary factors on making his poetry and his view of Buddhist history.

In chapter III and IV, I concentrated on giving a full discussion aspects in Beomhae's poetry. 'Zen poetry(禪詩)' are expressed by his buddhism and 'Dasi(茶詩)' are written by his natural life. The poetry projected in his view of nature are called on 'Nature poetry(自然詩)'. Conclusively, I could convince to that the point of his poetic intension is 'Nature(自然)'.

Through these definite working, I referred to the features of his poetry in chapter V.

I think that the extensive understanding of Beomhae's poetry will be possible for the first time when it goes side by side with that a detailed study on the people effected or effecting Beomhae.

Key words : Buddhist historian, Zen poetry(禪詩), Dasi(茶詩), Nature poetry(自然詩)